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트럼프는 긴장 고조 중단하라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 특집

《공산당 선언》과
1848년의 세계 4~5면

《공산당 선언》과
오늘날의 위기 5~6면

마르크스 탄생 200년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실천한 혁명가

6면

한국GM
공장 폐쇄와
철수 위협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의
비극 속에 커지는
제국주의 충돌 위기

3면

전교조 창립세대 교사가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다

2면

검찰 성추행으로 본
한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

2면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청소년들이
반트럼프 행동을
준비하다

3면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김문성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운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 게 준 뇌물 규모를 더 크게 판단했다.

롯데 회장 신동빈도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석방 사흘 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적폐 수사의 핵심에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이건희 사면의 대가로)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심지어 사법부 안에서도 같은 건을 두고 판결이 달랐다. 물론 두 재판부 모두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는 검찰이 신경질을 부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과 투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과 조직적 은폐 사실을 폭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최교일(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됐다.

검찰 내 이단아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는 긴급 구성된 검찰 내 성추행진상



국가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자본들의 힘도 더 세졌다. 이 둘 모두 조직 노동계급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조사단장 검사 조희진도 (임 검사 자신의 건을 포함한) 다른 성추행 은폐에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압박을 받은 탓인지 조희진은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고 곧 기소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도 검찰 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권성동이 연루돼 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이명박과 다스 의혹 수사에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근혜 적폐 수사로 지지도 받았지만, 구 여권의 권력 남용에 '부역'한 죄로 적폐 취급을 받아왔다. 성추행을 포함한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검찰 내 주류이자 극히 부패함)을 보면, 검찰 외부의 개혁 요

구(공수처 신설 같은)에 대한 이해관계와 대응 방향을 놓고 권력 투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내분

퇴진 촛불이 정점을 이루자 정권 퇴진 열망을 국회가 받아안아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수렴한 것이 한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신용을 높이고, 안착시키고, 강화했다는 주장이 진보·좌파 일각에서도 있었다. 이런 관찰은 <노동자 연대>도 공유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부 다른 좌파처럼 박근혜 퇴진 후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근시안에 일면적이었다. <노동자 연대>가 덧붙였듯이, 한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순과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대 이후 시

장 지향적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성장해 왔다. '정경 유착'이 한국 경제의 유전자처럼 된 이유다. 그런데 경제 성장(자본 축적)의 결과 국가와 자본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자본의 힘도 더 세졌고 자본의 요구와 지향도 더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계급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인구의 70퍼센트가량을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관심사를 제쳐놓고 국가적 의제를 말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도 성장했다. 1987년과 1997년의 대중 파업은 한국의 국가 형태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진정한 동력이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이 자본주의적 정치 구조 안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킨다든지 하여) 조직 노동계급을 (부분적으로) 통합시키는 국가형태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조직 노동계급의 저항에 격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의 통합도가 갈수록 높아져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처지에 노동운동에 타협적으로 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소심하다. 결국 그들 다수가 쓸모 없어진 박근혜를 버리고 구원투수로 문재인을 선택했지만, 문재인이 개혁(은근해도)과 포퓰리즘(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적 대화 같은)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고무할까 봐 또 걱정한다.

바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정하게 발전해 온 것이다. 가령 과거에는 경제 성장의 필요악으로 취급되던 국가와 자본의 유착이 이제는 (적어도

상식 차원에서는) "적폐"로 취급된다.

노동운동에 흔히 몽둥이도 휘두르고 싶지만 눈치도 봐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조차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강행했고, 자본주의 야당들은 노동 계약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명목상 이에 반대했다.

이런 모순들 때문에 국가와 자본의 관계도 일관되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포함해) 내분이 일상화돼 있다. 여야 갈등이 거의 언제나 첨예한 배경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배계급 내 위기감과 갈등도 첨예해졌다.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잠시 조성됐지만, 오래가진 어렵다.(이번 호에 실린 김영익 기자의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를 보시오.) 주한미군사령관 브룩스는 최근 미국 의회에 (올림픽 동안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했다.

한국의 우파는 (남북 해빙 무드가 오래 지속되면) 억압적 반공주의 통치 수단들이 약화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철강 등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제재 방침 등 경제 이슈가 한미동맹 등 안보 이슈로 급세 변졌다.

이런 일들은 국가기관 내 갈등 상황을 노동계급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들이 날카롭게 분열해 있을 때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에 나서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혜롭게 정세를 활용해 승리한 까닭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전교조 창립세대 교사가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다

김미경 중학교 사회 교사, 전교조 조합원

"초·중·고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월 5일 현재 21만 3219명이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이 청원도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지난해 5월 유·초·중·고 교사 636명(여성 447명, 남성 142명 등)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75명(59퍼센트)에 달했다. 과거보다 학생들이 욕설이나 여성비하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습득한 나쁜 버릇이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하고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 현장에서 남학생들끼리 서로 놀리며 여성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왜 남자들끼리 그러나

고 물으면 그것이 더 센 표현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답하는 남학생들에게 되묻는다. 누가 너의 할머니, 어머니, 누나, 여동생에게 그런 나쁜 말을 하면 네 마음이 어떨겠냐고. 그러면 학생들이 주춤하며 고개를 숙인다.

또 사회수업 시간에 일부 남학생들은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역차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보통·평등 선거권이 20세기에 와서야 자리 잡게 된 투쟁의 시간들을 함께 탐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 등의 불평등 구조를 자신의 가족 속에서 함께 살펴본다.

수업을 하다보면, '여자 대 남자'라는 단순 이분법 속에서 추상적이며 어긋난 대립의식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남학생을 많이 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성불평등의 요소를 탐색해보자고 한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둠별로 토론을 해본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여자와 남자는 똑같이 존엄

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동영상상을 수업 시간에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에 대해 모둠별 토론을 하면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둠별로 상상하고 탐구해서 모의재판을 하면서 구체화시켜 본다.

성불평등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가족이라는 작은 틀에서 출발해 전반적인 사회구조로 확장해 나가며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의 성평등 교육도 절실하다.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이뤄지고, 이것이 반드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초·중·고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이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장차 자신의 일터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성 차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을 노동자 계급과 파업할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_____

※텍스트 대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시리아 내전 중 시리아인 난민들이 미국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는 모습. (출처: 로이터)

파시즘 지지자가 자행한 대량 살상에 대한 분노가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과 맞닿을 수 있다

미국 고교 총기 난사로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커지다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소재 마저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7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여성 행진 청년의 힘’이라는 단체는 3월 14일에 [총기 난사 피해자의 숫자와 같은] 17분 동안 전국 동맹 휴업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19주기인 4월 20일에 전국 동맹 휴업을 벌이자는 또 다른 호소도 있다. 3월 24일에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도 기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는 여성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마저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 재클린 코린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학년 학생 100명이 20~21일 양일간 플로리다주 주도(州都) 탤라해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우리 목소리를 전할 겁니다.”

같은 학교 학생 에마 곤잘레스는 이렇게 꼬집었다. “전미총기협회

(NRA)에게서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들, 죄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학생들의 항의 행동을 지지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법안 제출 이상의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공화당 · 민주당을 불문하고] 역대 미국 정부들이 부추겨 온 군사주의, 폭력, 무력 숭상이 진정한 문제다.(관련 기사: 본지 95호 ‘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끊이지 않는가’)

인종차별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운동이 새로 분출하면, 인종차별적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이주민 공격에 넌더리를 내는 정서에 힘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사건의 범인 니콜라스 크루즈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소수인종이 범인일 때보다 온정적 태도를 취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시 스테판 F 오스틴 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같은

학교 학생 데니스 리베라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에 항의해 동맹 휴업을 벌였다.

리베라는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에 휘말린 후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강제 추방을 당했다.

리베라가 미등록 이주민이어서 보석 신청도 기각되고 구금됐고, 이때문에 항의 운동이 자라났다.

리베라 구금 소식은 미국이 미등록 이주민 강제 추방을 활동가 탄압에 이용한다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하는 와중에 알려졌다.

유엔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실은 마루 모라-빌라폰다 사건을 그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마루 모라-빌라폰다는 ‘구금에 맞선 북서부 저항’이라는 단체의 지도자다. 이 단체는 민영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재소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선 2014년에 결성됐다.

모라-빌라폰다는 그때 이래로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됐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92호 / 번역 김준호

대량 살상범은 파시스트를 찬양한 자다

시민단체 ‘비방반대동맹’은, 이번 사건의 범인 니콜라스 크루즈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플로리다공화국’(ROF)의 조직원이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공화국의 수장 조던 제레브는 크루즈가 ROF에서 훈련받았다고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장했다.

[사람들의 항의에 직면한] 제레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크루즈를 자기 조직원이라고 말한 것은 “오해”였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이 크루즈가 극우 조직의 일원이라고 전한 후의 일이었다.

크루즈가 이 조직의 일원임은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언론은 크루즈가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한사코 고집한다.

그러나 크루즈는 SNS에서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을 찬양한 바 있으며, 자기 가방에 “나치의 상징”을 그리고 다녔다.

CNN은 사실 채팅방에 잠입 취재해, “크루즈가 멕시코계 이주민들을 살해해야 하고, 흑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리다가 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크루즈는 다른 계정의 SNS에서는 무슬림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두말할 것도 없이, 시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한 이 유다. 전쟁을 부추긴 지역적 · 세계적 열강의 경쟁이 훨씬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다.

이 비극의 땅에서 강력한 군대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2월 10일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드론(무인기) 기지를 공격했다. [그 공격 중에] 시리아 공군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고, 이스라엘은 그 보복으로 시리아와 이란의 시설에 추가 공격을 가했다.

2월 15일 러시아 외무장관은 2월 초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인 5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시리아 내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했다. 현재에도 러시아군은 여전히 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사망한 러시아인들은 상당수 민간인 용병이고 그 일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친러시아 자치정부를 세우는 데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장 크게 득을 본 곳은 러시아와 이란이다. 이란은 [시리아의] 아사드,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개입은 시리아 상황을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란 정권과 그 측근 기업들은 시리아와의 동맹 관계를 내세워 각종 이권 사업을 따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시리아의 기업인과 외교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더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시리아 정부 관료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란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가장 크게 낭패를 겪은 이들은 물론 시리아 민중과 2011년에 혁명을 일으킨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의 계속되는 압제에 직면해 있다.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도 시리아 내 거점을 잃었지만, 그들의 지하드주의 정치는 다른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패배자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다. 그는 2011년 혁명을 확고히 지지하며 자신과 같은 이슬람주의자가 시리아에서 집권하길 원했다. 그의 이 목표는 철저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아이시스를 격퇴하기 위해 서방의 지원을 받아] 잘 무장한 쿠르드인 민병대와 대면하게 됐다.

[2011년 혁명이 터져 나오자] 아사드는 그 지역에서 병력을 뺐고,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인 인민수비대(YPG)가 그 지역을 차지했다. 인민수비대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동맹 세력인데, 쿠르드노동자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터키 국가에 맞서 싸워 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쿠르드인들이 시리아 북동부에 거점을 확보하자 에르도안은 쿠르드노동자당과의 평화 협상을 폐기하고 터키 내 쿠르드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인민수비대가 주도하는 시리아민주군(SDF)이 아이시스 격퇴 전쟁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시리아민주군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인민수비대의 이데올로기적 혁신성과 군사적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

쿠르드

시리아에서 아이시스 격퇴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동맹 세력은 쿠르드인 무장 세력이였다.

이제 아이시스는 사라졌고, 시리아에 개입 중인 세력들은 쿠르드인이 통제하는 지역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인들을 살해한 미국의 공습은 쿠르드인이 통제하는 지역의 마을 쿠샤와 살리히야를 공격하려는 아사드 정권의 군대를 경계한 것이었다.

1월 말 터키군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 아프린주(州)의 쿠르드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 이 행동은 강대국들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병력 2000명을 시리아 북동부에 남겨 시리아민주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월 16일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터키로 가서 에르도안 등 고위 관료들을 만났다. 그 뒤 틸러슨은 양국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터키와 미국 모두 아이시스에 맞서 싸운다고 하지만, 터키가 아프린주를 공격할 때 옛 아이시스 병사들이 참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민수비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에르도안은 인민수비대와 그들을 지원하는 미군이 시리아 북부의 고대 도시 만비즈에서 철수하기를 원한다. 틸러슨은 “신경 쓰겠다”고만 약속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민수비대가 터키의 공세를 막으려고 시리아 정부군이 아프린주로 들어오도록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리아라는 생지옥을 둘러싼 위험한 패권 쟁투는 계속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92호 / 번역 최병현

《공산당 선언》과 1848년의 세계

올해는 1848년 《공산당 선언》출간 170주년이다. 다음은 고(故) 크리스 하먼이 2003년 4월에 쓴 《공산당 선언》소개 글이다.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지도적 회원이었다. 2009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공산당 선언》은 심증팔구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친 정치 소책자일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작은 조직인 ‘공산주의자 동맹’은 1847년 말에 독일 출신의 두 망명 지식인에게 이 문서의 작성을 의뢰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좀처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다.

여전히도, 이 책의 구절들에는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면모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지, 이 사회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뒤돌아보는 전쟁과 반복되는 경제 위기,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과잉생산”이 병존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책의 설명은 여전히 적절하다. 이 책은 세계화에 관한 최신 서적에야 실릴 법한 구절도 있다.

시대의 흐름

역사를 보면 한 편의 글이 새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 바로 그런 글이었다. 《공산당 선언》은 혁명이 임박했다는 어조로 쓰였고, 초판이 판매되기 시작할 무렵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나폴리에서 베를린까지, 그리고 파리에서 부다페스트까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저작이 곧 유럽의 모든 언어로 번역 출간될 정도로 크나큰 영향력을 펼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책이 독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고작 40페이지 안팎에 지나지 않는 분량의 문학작 언어로 쓰인 이 책이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들 인류 역사의 전반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해서 설명해 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당시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비록 책에 언급된 일부 인사들은 죽은 지 오래돼 사실상 잊혀졌지만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자본주의가 독재한 세계에 살고 있다. 대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며, 노동자 수억 명이 공장과 광산과 사무실에 집중돼 일하고 있다. 인간의 온갖 가치가 금전으로 환산된다. 우리네 삶은 자본주의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을 모종의 보편적 인간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회가 생긴 지는 고작 200년 남짓밖에 안 됐다. 1770년대에 들어서야 잉글랜드 북부에 근대적 공장이 탄생했다. 시장 원칙을 기초로 세워진 사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분석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

론》이 집필된 것도 이 시기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원고를 작성할 때,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지역은 세계의 극히 일부였다. 그조차 영국, 서유럽의 가장자리,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지역에 국한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제쳐 두고, 유럽만 보더라도 노동계급은 전체 인구에 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을 뿐이다. 1870년대에도조차 독일 노동계급은 전체 인구의 고작 10퍼센트밖에 안 됐다.

그 시절 전 세계의 산업 노동자는 다 합쳐 오늘날 남한 한 곳의 산업 노동자보다도 적었다.

산업 노동자

당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회였다. 유럽은 봉건제라고 불린 사회였다. 권력은 막대한 특권을 누리던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 있었고, 그들은 인구의 압도 다수인 농노의 등골을 빼먹으며 살았다. 이들 지배계급은 사회는 고정불변의 위계질서 — 꼭대기에는 신한대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군주가, 밑바닥에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농노가 있다 — 로 이뤄져 있다는 관점으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왕과 영주가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으며 정치적 탄압과 굴종 일반이 사라진, 자유롭고 더 진보한 사회를 진정으로 바란 사람들은 대 부분 이런 이상을 성취하려면 사회를 시장 원리에 따라, 또는 (애덤 스미스가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원리에 따라 세계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1840년대 들어 소수는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선 곳에서도 옛 사회의 억압이 외양만 바꾼 채 건재했다. 농촌에서의 고된 노동은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흉작으로 말미암은 기근은 산업 공황으로 말미암은 굶주림으로, 마름의 채색은 경찰관의 곤봉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새로운 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곳 어디



에서든 그에 맞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도시에 살면서 노동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반란이었다. 《프랑스》리옹의 비단 직조공 봉기, 《독일》슐레지엔 직조공들 사이에서 전개된 선동, 영국 차티스트 운동 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파업과 집회가 그 사례이다. 새로 등장한 자본주의가 옛 봉건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듯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사람이 도달한 결론도 그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독일 사회의 정치적 문제들을 다루는 심도 있는 글을 쓰려면 사회적 쟁점들을 신han대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군주가, 밑바닥에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농노가 있다 — 로 이뤄져 있다는 관점으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왕과 영주가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으며 정치적 탄압과 굴종 일반이 사라진, 자유롭고 더 진보한 사회를 진정으로 바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상을 성취하려면 사회를 시장 원리에 따라, 또는 (애덤 스미스가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원리에 따라 세계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1840년대 들어 소수는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선 곳에서도 옛 사회의 억압이 외양만 바꾼 채 건재했다. 농촌에서의 고된 노동은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흉작으로 말미암은 기근은 산업 공황으로 말미암은 굶주림으로, 마름의 채색은 경찰관의 곤봉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공산당 선언》 초판 표지

만 큼이나 억압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파리에 망명을 갔을 때 그들은 옛 체제와 새 체제 모두가 아닌 대안을 찾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가족 소유의 공장을 경영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잉글랜드 맨체스터로 온 엥겔스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됐다. 엥겔스는 차티스트 운동에서 배웠고 신생 산업자본주의가 낳은 결과들을 다루는 선구적 연구서인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을 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내 협력하며 함께 글을 쓰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무엇보다 자본주의에 맞설 방법을 모색했다.

이 둘의 공동 작업에서 나온 위대한 산물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었다. 자본주의가 봉건제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새 계급들이 옛 계급들과 충돌하면서 봉건제 사회 내부에서 혁명적 위기를 되풀이해 초래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한 부분은 《공산당 선언》의 백미다. 또한,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신에 맞서는 세력을 창출하는지를 보여 주고, 100년 뒤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화하고 노쇠해지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 소유자들을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체제의) 동역학이 어떻게 부조리를 초래하는지 보여 준다.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거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그 병폐를 다루는 수많은 저작들에 견줘 《공산당 선언》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을 다루는 부분이다. 《공산당 선언》은 자본을 성장시키는 (즉 “축적”시키는) 동력이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사람들, 즉 노동계급의 규모를 키우고야 만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그런데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파착취계급과 차이가 있다.

잠재력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커다란 규모로 대영 작업장과 대도시에 밀집시켜서,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투쟁할 잠재력을 준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이 파착취자들은 바로 이 힘이 없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신의 생산성을 위해 노동자들이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요구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 어떻게 하면 사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재조직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잠재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언제나 혁명적 방식으로 전개되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현존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났기에,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대개 사회에 널리 퍼진 편견을 받아들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명확히 지적하듯이, “지배적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하지만 다른 아닌 자본주의의 동역학 때문에 자본주의가

한때 조장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한때 보장한 삶의 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이 경제 위기 때문에 도로 바뀔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모든 견고한 것들이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사회를 잇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생겨난다.

이 중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 투쟁에는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단결해 공동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위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듯이, 노동계급의 단결이 깨지는 시기는 자본이 더욱더 많이 축적되는 시기로 이어진다. 그러면, 노동계급이 더욱 성장해 투쟁과 단결해 계급의식이 고양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라 체제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더 큰 잠재력이 창출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분석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20세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선가 노동계급 반

란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런 반란이 없는 시기가 10년을 넘어간 적이 없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설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때때로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염두에 둔 노동자가 거의 변함없이 대규모 공장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인데, 오늘날 그런 육체 노동자는 몇몇 나라들에서 인구의 소수이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실제로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살던 시기에 노동계급의 특성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담긴 논리를 보면, 노동자는 특정 종류의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 육체 노동이든 사무직이든 — 한정되지 않다. 그들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팽창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임금노동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의 전형적 구성원은 농민이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 그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목격하고 있다.

이 인용문만 보더라도 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가 통치한 소련 사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사회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시장 예찬론에 빠진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중국과 세습 독재 국

가 북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반체제주의적이지만 독재 체제인 쿠바조차 마르크스·엥겔스가 주장한 사회와 같지가 않다. 그 모두 노동자들의 능동적 활동에 기반을 둔 체제가 아니다. 그 모두 “살아 있는 노동”(즉 노동자들)이 축적에 종속되지 않은 사회가 아니다.

《공산당 선언》 2부 뒷부분에 제안된 당면 행동을 위한 구체적 요구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첨언이 필요하다. 그 요구들은 1840년대 말의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해야 한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안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요구들이 똑같이 적합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3부는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를 묘사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꽤나 어렵다. 예컨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1840년대 중반 독일에 존재했으나 그 이래로는 축적이 사라진 집단이다. 하지만 3부에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아주 중요한 주장을 남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사회 꼭대기의 소수가 밑바닥의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선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대중이 스스로 혁명적 행동에 나서서 선취하는 아

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 문제는 《공산당 선언》이 쓰여진 이래로 항상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 오늘날의 반자본주의 운동 내 세력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스스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

의 현학적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신

의 역사적 운동은 모두 소수의 운동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은 절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다수의 자기의식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승리는 “살아 있는 노동이 축적된 노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해서 “축적된 노동이 노동자의 실존을 폭넓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복돋는” 사회가 도래하도록 할 것이다.

이 인용문만 보더라도 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가 통치한 소련 사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사회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시장 예찬론에 빠진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중국과 세습 독재 국

가 북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반체제주의적이지만 독재 체제인 쿠바조차 마르크스·엥겔스가 주장한 사회와 같지가 않다. 그 모두 노동자들의 능동적 활동에 기반을 둔 체제가 아니다. 그 모두 “살아 있는 노동”(즉 노동자들)이 축적에 종속되지 않은 사회가 아니다.

《공산당 선언》 2부 뒷부분에 제안된 당면 행동을 위한 구체적 요구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첨언이 필요하다. 그 요구들은 1840년대 말의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해야 한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안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요구들이 똑같이 적합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3부는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를 묘사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꽤나 어렵다. 예컨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1840년대 중반 독일에 존재했으나 그 이래로는 축적이 사라진 집단이다. 하지만 3부에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아주 중요한 주장을 남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사회 꼭대기의 소수가 밑바닥의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선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대중이 스스로 혁명적 행동에 나서서 선취하는 아

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 문제는 《공산당 선언》이 쓰여진 이래로 항상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 오늘날의 반자본주의 운동 내 세력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스스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

의 현학적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신

의 역사적 운동은 모두 소수의 운동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은 절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다수의 자기의식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승리는 “살아 있는 노동이 축적된 노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해서 “축적된 노동이 노동자의 실존을 폭넓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복돋는” 사회가 도래하도록 할 것이다.

이 인용문만 보더라도 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가 통치한 소련 사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사회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시장 예찬론에 빠진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중국과 세습 독재 국



《공산당 선언》과 오늘날의 위기

다음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2010년 8월에 쓴 《공산당 선언》소개글이다.

《공산당 선언》의 현실성은 [2003년에] 크리스 하먼이 서문을 쓴 뒤로 오히려 커졌다. 하먼이 지적하듯,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오늘날의 경제적 세계화 시대를 이끄는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밝혀냈다.

이 동역학의 중요한 측면 중 한 가지는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 점이 드러난다.

“상업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데, 그 시험대는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 변해 간다. ... 이 위기 속에서 이전 모든 시대에서는 터무니없이 역병이 발생한다. ...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생산력이 더는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발전하도록 돕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력이 소유 관계에 비해 너무 커져서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한다. 그리고 생산력이 이 속박을 극복하는 즉시 부르주아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는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부르주아 사회의 소유 관계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부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 부르주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거대한 생산력을 강제로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며 이미 확보한 시장에서는 착취를 강화한다.”

2007년 8월 이른바 신용 붕괴가 벌어진 이후, 지배계급의 대변자들에게는 당황스럽게도 세계는 마르크스가 말한 종류의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종류에 빠졌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 사태를 “3차 공황”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 후반에 세계 자본주의를 쥐고 흔든 경제 위기와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일련의 금융 공황으로 시작한 위기는 3차각한 불황으로 발전했다. 2009년에 세계 생산량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자들은(관련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저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해서 《좀비 자본주의》를 쓴 크리스 하먼, 그밖에 데이비드 하비, 로버트 브레너 등) 금융의 힘이 성장한 것은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려 사용한 수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마땅하게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여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윤율이 미미하여 시장 논리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고, 국유·공공 산업을 대거 민영화하고, 복지국가를 구조조정하는 짓로 노동자를 더 쥐어짜함으로써 이윤율을 끌어올리려 했다.

맹목적 경쟁 논리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착취당하기는 하지 만(예컨대 미국에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1970년대 이후로 정체돼 있다) 이윤율은 아직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 규제로부터 점점 더 벗어난 금융 시장은 그 간극을 메웠다. 그에 따라 어머니 마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광기를 낳았고 탐욕과 투기가 판을 쳤다. 마르크스 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 사태를 “3차 공황”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 후반에 세계 자본주의를 쥐고 흔든 경제 위기와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일련의 금융 공황으로 시작한 위기는 3차각한 불황으로 발전했다. 2009년에 세계 생산량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 6면으로 이어짐

공개 토론회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공산당 선언》출간 170주년 — 오늘의 의미

서울 2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함흥문화관 3층 가천홀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150미터)

발제자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참가비 3,000원 (학생은 2,000원)

경기

일시 3월 1일(목) 오후 4시

장소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회의실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400미터, 골문로터리 5호선)

발제자 이장구 (마르크스21) 편집자, 노동자연대 활동가

참가비 1,000원

인천

일시 3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동 인천본부 1층 교육장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150미터)

발제자 이장구 (마르크스21) 편집자, 노동자연대 활동가

참가비 2,000원 (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오늘 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사라 베이츠가 마르크스의 비범한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되새길 교훈을 살피본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투쟁에 한평생 헌신한 혁명가였다.

마르크스는 살면서 끊임없이 곤궁했고 죽을 때도 무일푼이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자리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중간계급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대학에서 그는 청년 헤겔주의자들과 어울렸다. 청년 헤겔주의자들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기 일쑤인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저작을 두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평생에 걸쳐 노동계급 투쟁에서 배웠다.

대학을 떠난 후 프랑스로 간 마르크스는 독일에서는 접하지 못한 크고 선진적인 노동계급을 목도했다.

그 덕에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독특하게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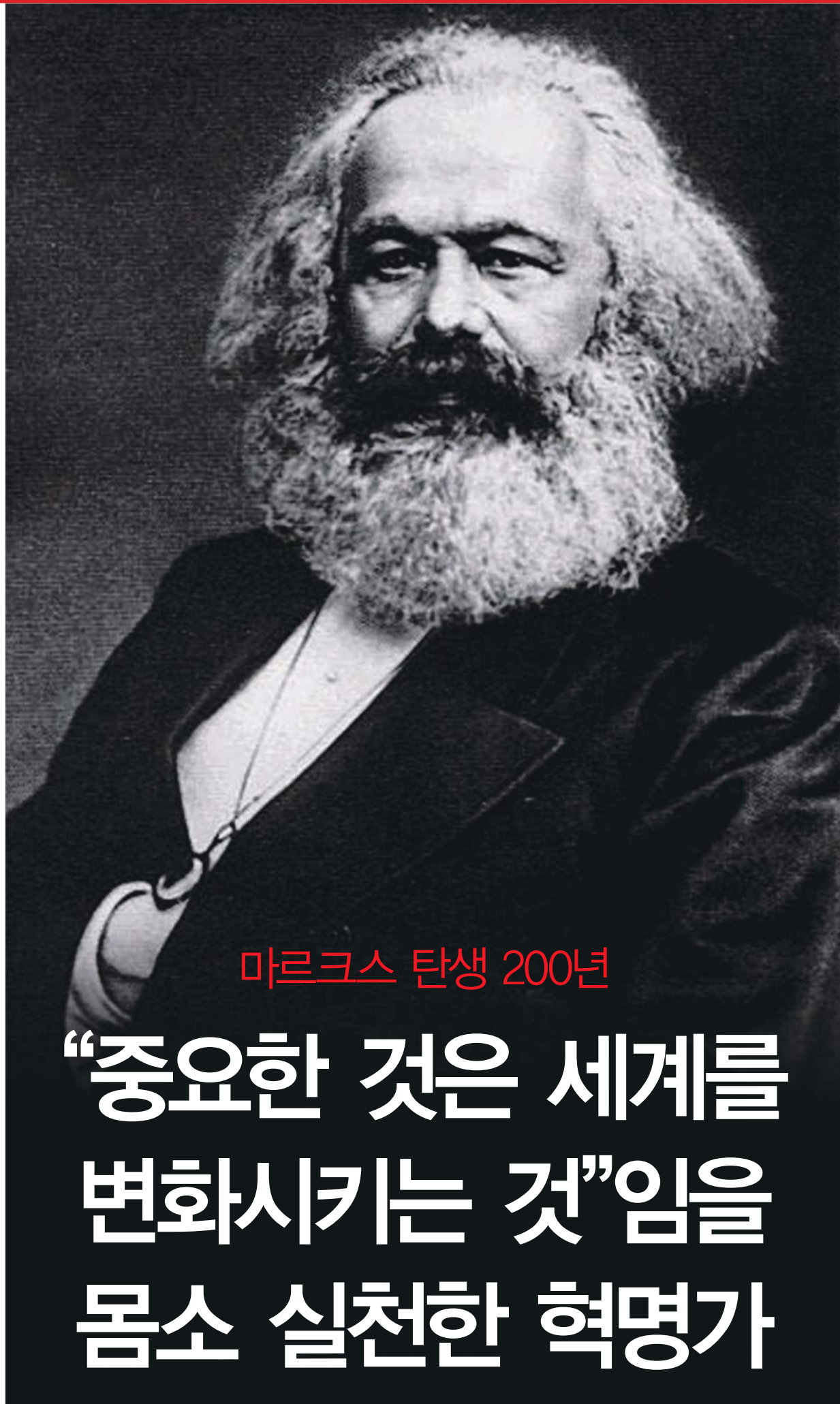
1841년에 마르크스는 언론인이 됐다. 나중에 마르크스는 “생애 최초로 물질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경험을 회고했다.

마르크스는 〈라이니셰 차이퉁〉에 기사를 쓰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또, 마르크스는 역사를 영웅적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세력들의 [투쟁의] 산물로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년 헤겔주의자 등은 노동자 투쟁을 깔봤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 사회를 바꾸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역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봤다.



마르크스 탄생 200년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몸소 실천한 혁명가

1844년 마르크스는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만났고, 둘의 우정은 죽을 때까지 지속됐다.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정치적·재정적으로 굳건히 뒷받침해 준 것은 마르크스에게 사할적으로 중요했다.

마르크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자본론》 집필에 여러 해가 걸렸고, 마르크스 생전에는 첫 번째 권

만 간신히 출판됐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연구한 것은 학술 활동을 하고자 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 계급투쟁에서 쓸 강력한 무기를 버리기 위해서였다. 마르크스는 1847년 국제공산주의동맹 창설, 1874년 제1인터내셔널 창설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혁명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휩쓸

었던 1848년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출판했다.

이 혁명은 패배했고, 마르크스는 이 경험을 반추하며 사회주의 조직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됐다.

교훈

마르크스는 이 혁명에서 배워 미래의 투쟁에 도움이 될 교훈을 이끌

“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만 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 카를 마르크스

”

어냈다.

마르크스는 산업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 노동자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마르크스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

살아 숨 쉬는 노동계급 권력이었던 파리 코뮌은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분쇄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 드러냈다.

마르크스는 1883년에 사망했다. 마르크스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뛰어난 저술가로서뿐 아니라 정력적으로 활동한 사회주의자로서 유산을 남겼다. 마르크스는 세계의 이런 저런 모습에 대해 논평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다.

엥겔스는 하이게이트 묘지에서 열린 마르크스 장례식에서 그를 추도하며, 마르크스의 죽음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서 엥겔스는 이렇게 연설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는 것에 어떻게든 기여하는 것이 그의 평생 과업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비범한 생애에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가 남긴 통찰을 활용해 혁명적 변화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번역 김준호

영국 반자본주의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590호

▶ 5면에서 이어짐

것이 터지자 서구의 은행 시스템을 파괴할 뻔 했고 세계경제는 “대침체”라고 불리는 사태에 빠졌다.

이런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 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밝혀 낸 맹목적 경쟁 논리가 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가 다른 차원에도 적용되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은 국가 간 경쟁과 뒤얽혀 있다. 그 결과 20세기에 는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 이 벌어졌고 이후 오랜 냉전으로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 경쟁했다. 오늘날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권을 재

천명하는 데 실패한 이후 눈에 띄게 그 패권이 약해졌다. 미국, 떠오르는 강자 중국, 재기한 러시아와 그 밖의 여러 국가들 간의 경쟁 구도가 세계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형성하고 온갖 위협을 초래할 듯하다.

그러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대혼란을 초래할 기후변화다. 정신 나간 일부 우파와 그들을 후원하는 강력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기후 혼란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뿐인데, 그러려면 우

리가 생산하고, 이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경쟁자에게 뒤처질까 봐 그런 변화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것은 2009년 12월에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 정상 회의에서 드러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는 온실가스 규제 염원은 아랑곳 않고 어떤 배출량 감축 목표도 정해지지 못하도록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자본의 경쟁 논리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썼듯이 실로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생산력이 더는 부르주아의 소

유 관계가 발전하도록 돕지 않는다.” 또 《공산당 선언》의 다른 부분에서는 “(계급투쟁 속에서) 때로는 은밀한, 때로는 공공연한 투쟁이 끊임 없이 지속됐고, 언제나 그 끝은 사회가 혁명적으로 재편되거나 투쟁하는 계급이 함께 몰락하는 것”이었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 사회 혁명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문명의 완전한 몰락이라는 것이다. 위대한 폴란드계 독일인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 말했듯, 사회주의나 야만이라는 선택이 놓여 있다.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가 결합돼 나

타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를 규제하거나 인간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적 조건을 밝히려 《공산당 선언》을 썼다. 또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투쟁이 응집력과 구실을 찾도록 도울 정치적 주체, 즉 국제적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켜 노력했다. 《공산당 선언》은 더할 나위 없이 21세기를 위한 선언이다.

번역 이진화

한국GM의 공장 폐쇄와 철수 위협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박설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중증 비정규직이 200여 명)이고, 협력업체 13곳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1만 3000여 명이나 된다. 군산 시 전체 고용의 22.6퍼센트나 되는 규모다. (2016년 기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군산 외 다른 공장의 미래는 수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완전 철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GM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합쳐 무려 3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GM은 그동안 철수설이 무성했지만, GM 본사가 분명히 철수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M 총괄사장 댄 암만은 이렇게 말했다. “GM의 한국 잔류 여부는 한국 정부가 기꺼이 자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한국 노조가 노동비용 절감에 동의해 줄지에 달려 있다.”

자금 지원: 누구를 위한?

이는 우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정부를 압박해 지원금을 받아 내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발표 시기를 설 연휴 직전으로 고른 것도 일자리 위협의 효과를 키워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GM은 한국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한국GM 소재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감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리 되면, 한국GM의 지분 17퍼센트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적어도 5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으면 한국GM은 토지세의 절반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재협상은 이런 GM의 생떼 버리기에도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트럼프는 곧장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나쁜 무역협정”(한미FTA) 때문에 한국GM이 위기를 겪게 됐다고 거들었다.

한미FTA 재협상의 미국 측 요구 가운데는 GM의 의사도 상당히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강화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안전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입법조사처). 그중 한국보다 규제가 덜한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



GM의 이윤 보장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보장을 위해 국유화해야 한다

입 쿼터를 확대하는 것은 GM이 줄곧 원해 온 것이다.

GM은 이런 엄청난 특혜들을 요구하면서 일자리 수십만 개를 볼모로 잡고 있다. 고용을 지키려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부도·파산 등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업주의 손실을 만회해 주고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사기업 GM의 자본금 조달과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대고 특혜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주가 온갖 특혜로 득을 보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열악한 조건을 강요 받기 일쑤다. 이것이 바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GM 공장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부가 자금 지원과 특혜 제공으로 GM을 붙잡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미봉책이기 십상이다.

GM은 호주에서도 ‘신차 배정’을 무기로 호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해 2001년부터 무려 1조 7000억 원을 받아 냈었다. 그러나 2013년 정부 지원금이 끊기자 GM은 호주 철수를 결정하고 결국 2017년 69년간 운영해 온 호주 공장 두 곳을 모두 폐쇄해 버렸다.

거둬들인 양보 압박

다른 한편, GM은 노동자들의 양보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GM 사용자 측은 노조에게 임금·복리후생 삭감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2월 13일에는 인원 감축도 예고했다. 전 공장의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이다.

이런 공격에는 어김없이 노동자 “경합시키기” 수법이 더해졌다.(세계 자

동차기업들의 노동자 경합시기에 관해서는 본지 232호 김하영,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를 참고하시오.) GM 본사가 3월 초에 신차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를 카드로 내세워 세계 각지의 노동자들을 경합시키는 것이다.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으로 “생산성 경쟁력”을 보여 줘야 공장 철수를 피하고 물량을 따올 수 있다는 논리를 퍼면서 말이다.

지난 수십 년간 GM은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서 노조 지도자들은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대신 “생산성 향상”, 임금 동결 등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국내의 경험들은 거듭된 양보가 노동자들을 더한층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결국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줬다.

호주 사례는 이런 점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호주 제조업 노동조합(AMWU) 지도자들은 GM의 “생산성 향상” 요구를 충족시켜야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양보를 거듭했다. 조합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수용하고, 남아 있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희망퇴직에 눈을 감았다.

2013년에는 3년간의 임금 동결(실질임금 삭감)과 교대제 근무 변경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등에 타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GM은 그해 말 호주 정부의 자금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공장 철수를 결정했다. 그 뒤로 공장 두

곳이 완전히 문을 닫은 2017년 말까지 4년이 걸렸는데, 노조는 이미 거듭된 양보로 조직력이 취약해져 이렇다할 저항을 조직하지 못했다. 절정기에 2만 4000여 명이던 인력은 2017년에 950명으로 대폭 줄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노조의 양보는 결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넘어 전체 공장의 철수까지 위협하고 나선 상황에서, 노조의 양보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장차 벌어질 더 큰 공격에 맞선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반대로 노조가 단호하게 파업을 선언하고 희망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이 실의에 빠져 희망퇴직에 이끄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공장 폐쇄와 철수에 제동을 걸 투쟁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대안과 투쟁 수단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가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긴급하게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GM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 등 뜬구름 잡는 얘기만 늘어났을 뿐 일자리를 보장할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임금 동결, 무쟁의 선언을 한 역사가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부도 당시 노조 지도부가 취했던 거둬들인 양보 교섭은 노동자들을 더한층 고통으로 내몰고 대량 해고도 막을 수 없었다. 무쟁의 선언은 투쟁의 족쇄가 돼서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새롭게 투쟁적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아쉽게도 그 지도부 역시 조건 후퇴를 양보하는가 하면 점거 파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경찰들 손에

공장을 내 주고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임금 동결”, “무쟁의”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공장 폐쇄·철수에 반대해 GM 사용자 측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철수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정부가 국유화를 단행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GM이 일자리를 쥐고 흔들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악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해선 안 된다.

국유화는 결코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GM은 애초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또다시 수천억 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라. 이런 돈은 GM 사용자 측의 배를 불리는 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물론 이를 쟁취하려면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공장이 폐쇄 위기에 놓였을 때 노동자들이 싸워 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 점거에 나선 노동자들은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장 점거는 생산을 마비시켜 완강한 사용자 측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다. 또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감시하는 한 사용자들이 함부로 설비를 철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효과 때문에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부도와 공장 폐쇄 시도가 잇따르자,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점거 투쟁이 이어졌다.

영국 자동차 부품업체(포드 계열사) 비스티온 노동자들은 사측의 공장 폐쇄 발표 소식이 나자 곧바로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첫날 벨파스트 지역 공장의 노동자들이, 그 다음 날에는 나머지 공장 두 곳의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장 문을 닫으려던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미국 포드 본사가 직접 노조와의 협상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점거파업은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집중시키는 데서도 탁월한 효과를 낸다. 2009년 미국의 창틀 제조업체 리퍼블릭윈도스 앤도어스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이 투쟁은 비록 260명 규모의 작은 공장장에서 진행됐지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공장을 점거하고 지지를 모은 덕분에 경제 위기로 실업에 내몰린 많은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떠올라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GM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지금, 노동자들이 단단하게 저항에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GM과 정부에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김영익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 밖에 없다.

북한은 올림픽을 계기로 전쟁 위험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하다. 2월 12일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북측이 핵 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자신의 패를 남한과 미국에게 보여 준 셈이다.

채찍을 든 미국

그러나 미국 부통령 펜스가 평창에서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한 데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여전히 기존의 “최대한의 압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평창의 ‘평화’와 대화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한다. 그러나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2월 18일 국무장관 틸러슨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근 대신 거대한 채찍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겠다.”

틸러슨은 같은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 옵션이 살아 있음도 분명히 했다. “나는 북한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4월부터 불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미 대화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것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를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문제와 노골적으로 연계해 왔다.

최근 호주 주재 대사로 지명된 미군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미국 하원에서 미·중 간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를 주로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한반도도 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의 우익은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고무돼 남북 대화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제원은 북핵 폐기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우익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돈 봉투를 줬다’는 폭로가 나왔을 만큼 자

기네 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사실을 그세 잊은 듯하다. 그래서 더 꼴사납다.

양극화

문재인은 남북 대화를 지속하길 원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경쟁과 미국의 대북 압박이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정부도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깨뜨리는 선택은 극구 피하려 할 것이다.

정세현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한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교환하는 “쌍중단” 해법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해 버리면 이전 지난해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정세현, <프레시안> 2월 14일 인터뷰)

평화 운동 일각도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시도를 환영하며 그 방향으로 더 밀어붙이라고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냈던 참여정부의 역할을 교훈 삼아 대화의 판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은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최근 “한미군사연습,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즉, 쌍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화 운동 일각에서 다시 커지는 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벌써 속도 조절?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남북 해빙’이 지속될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4월에 실시된다고 못박았다. 훈련 규모 축소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재개

를 기정사실화했다. 심지어 훈련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심지어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북·미 대화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여는 건 “우물가에서 송능 찾는 격”이라고 한 배경이다.

제국주의적 경쟁이 계속 악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을 넘지 않기로 한 이상, 평창의 평화는 안타깝게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에는 미흡하다. 한반도의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반도 평화 운동 건설의 필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처럼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에 항의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새로 각성하면서, 노동자 운동은 평화 운동의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막시즘
2018**

**7월 19일(목)~22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해외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의 트랜스 여성으로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다. 대학 강사 출신으로(현 67세) 대학노조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5년까지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는데, 영국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였다. 또, 대학노조 내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로부터 'UCU좌파'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막시즘2018에서 연설할 주제

-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 (개막 집회 연설)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십 개 알짜 주제로 막시즘2018에서 발제합니다.

※ 발제자와 주제가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 업데이트됩니다.